

朝鮮純祖戊子年
演慶堂進爵禮再現行事

순조 무자년 연경당 진작례 복원 공연

2009년 9월 28일(월) 창덕궁 연경당 본채

1회: 11:00-13:00 2회: 17:00-19:00

주최: 서울국제문화교류회,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부설 세계민족무용연구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립국악원, 창덕궁관리소, 율가한국전통예술기획

한국관광공사

축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맑은 바람 불어오는 9월, 가을 정취를 고스란히 안은 창덕궁에서 펼쳐지는 2009년 〈연경당 진작례 복원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진 '연경당 진작례 복원공연'은 먼 시간 속 우리 선조들의 기품 있는 문화에 숨결을 불어 넣고자 노력한 결실이기에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순조 무자년, 창덕궁 연경당을 수놓았던 '진작례 공연'은 어머니인 순원황후의 생신잔치를 크게 벌여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동시에 외척을 견제하고 조선의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 효명세자의 위엄이 깃든 수준 높은 우리의 무용공연예술입니다.

특히 2009년 9월, 진작례 '악장'편에만 기록되어 있는 여섯 종목(공막무, 무고, 고구려무, 아박무, 포구락, 향발무)의 복원공연을 통해 예절, 시, 음악, 춤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19세기 조선 궁중연향의 최고 수준인 진작례와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조상들의 소중한 문화·예술이 담긴 '연경당 진작례 복원공연'을 많은 관객들과 나누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를 더욱 가꾸 우리의 궁중 문화가 세계 속에 환하게 빛나게 되길 기원합니다.

향기로운 가을날, 그림 같은 연경당에서 조선시대 궁중정재의 고매한 우아미를 가슴 가득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3년 간, 이번 공연을 위해 각 분야에서 애쓰신 연출자 여러분과 연구팀, 기획팀 및 제작진 한 분, 한 분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2009년 9월 28일



김 성 재

서울국제문화교류회 회장

차가운 바람이 불고 높고 푸르른 하늘빛을 발하는 계절, 가을이 어느덧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런 좋은 날 서울국제문화교류회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설 세계민족무용연구소가 주최하는 <연경당 진작례 복원 공연>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육성 지원 아래 "한국 근현대 전통무용의 굴절과 계승 방향"이라는 프로젝트로『순조무자 진작의궤』(2006)를 해석하고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2006년부터 17종목의 궁중정재를 3차에 나누어 실제 복원공연 하고 있는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현공연으로 인해 조선 최초의 문화 기획자였던 효명세자와 우리나라 궁중정재의 진면모를 재발견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단순한 <진작의궤>의 고증과 복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소중한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의 문화적 역량을 되살리게 도와주는 초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뜻 깊게 생각하며 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본 행사를 계기로 궁중 문화의 새로운 현대적 해석과 의미를 찾는 다양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연경당 진작례 복원공연>으로 인해 세계 속 우리 전통 궁중 문화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가슴 속 깊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축사



허영일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소장

어느덧 햇살이 눈부시고, 나뭇가지 사이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상쾌한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세계민족무용연구소는 창덕궁 연경당에 여러 내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6년부터 행해온 순조 무자년 진작례의 4차 복원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연경당에서 4차 진작례의 학술적 복원공연을 하기까지 매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느끼는 보람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족한 점도 많고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내어 시도한 복원작업이었지만 해를 거듭하며 연경당이 점차 활기를 찾아가면서 조금씩 보완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전통무용이 궁궐의 전통문화 속에서 살아 숨쉬는 모습으로 대중들 앞에 선보이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져 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4년에 걸쳐 조심스럽게 부분공개로 진행하였던 복원공연이 완성되고 연경당 관광상품화 사업으로 개방되어 일반 대중들을 만날 수 있도록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번 연경당 복원공연은 4년간의 학술작업을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된 전문성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아름다운 전통공연으로 거듭났다고 자부합니다. 그 동안 무용원 이론과 학생들도 힘을 합쳐 열심히 배우고 의례를 진행하면서 이제는 전문가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때로는 아프게 지적해주셨던 여러 전문가 분들과 인사 분들께 감사드리고, 연경당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몸과 마음을 다해 애써준 연구소의 연구진들과 실무를 맡아준 기획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고, 외부에서 도와준 여러 고마운 분들께도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여러분들의 마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부디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허 동 성
연출가, 연극학박사

4년전인 2006년 『진작의궤』의 분석과 고증을 바탕으로 처음 시도된 순조 무자년 창덕궁 연경당 진작례 복원공연의 연출을 맡아 무척 분주했던 기억이 남아있다. 한정된 제작비 여건에서 의례와 무용, 의상, 무대는 물론 의상, 상화, 음식, 그 외 소품, 도구 등을 포함한 각종 의물들의 충실한 고증재현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여건은 이번 공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별도로 준비된 의례, 무용, 음악, 무대, 의물 등의 상연요소들을 최종적으로 조화시키는 작업이 연출의 주요 관건이었다. 다행인 것은 지난 3년간 계속된 복원공연을 통해 진작례의 연행절차와 형식, 그에 따른 준비과정에 대한 제작 참여진들의 기본 이해와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세계민족무용연구소의 개소 10주년과 맞물리는 이번 공연은 순조 당시 야간에 행해졌던 야진작례를 최초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신선한 시도가 될 것이다. 기획과 제작과정을 총 지휘한 세계민족무용연구소 허영일 소장님, 춤과 음악, 연기 부문의 충실한 재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 연행자 분들, 복식, 음식, 상화, 소품 등의 제작을 해 주신 각 분야의 디자이너 분들, 아울러 이번 공연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많은 고충을 감수하며 묵묵히 애써주신 제작스텝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궁중정재 소개

본 복원공연은 2006년~2007년 순조무자년『진작의궤』〈의주〉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17종목의 복원에 이어, 〈의주〉에 누락되어 있으나 〈악장〉에 기록된 궁중정재 6종목의 실제 실행가능성을 토대로 〈악장〉과 〈복식〉, 〈도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최종 6종목의 복원을 실시한다.



■ 공막무(公莫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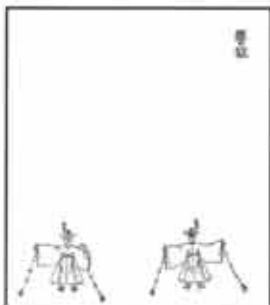
잡무곡(雜舞曲)에서는 「전무(巾舞)」라고 하였다. 항장(項莊)이 칼춤을 추자 항백(項伯)이 소매로 막으며 항장에게 “그대는 그러지 마시오[公莫]”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였다. 뒤에는 「검무(劍舞)」가 되었는데, 향악(鄉樂)을 사용하였다. 두 무동이 높은 운계(雲髻)를 쓰고 전투복을 입고 각각 두 자루의 검을 들고 서로 마주보고 춤춘다.



[특별공연]

■ 예제춘앵전(睿製春鶯囀)

『연감유함(淵鑑類函)』에 당고종(唐高宗)이 피꼬리 소리를 듣고 악공 백명달(白明達)에게 명하여 묘사하게 하였다. 단석(單席)을 설치하고, 무동 1인이 자리 위에 서서 진퇴선전(進退旋轉)하면서 자리 위를 떠나지 않으며 춤춘다.



■ 향발(饗拔)

유철(鋤鐵)을 사용하여 만들고, 좌우의 손에 묶어 서로 두드리며 춤추는 박자로 삼는다. 당(唐) 나라 때의 연악(燕樂) 법곡(法曲)에 「동발상화지악(銅鉞相和之樂)」이 있었는데, 우리 조정에서는 향악(鄉樂)에서 모방해 사용하였다. 두 무동이 각각 좌우의 손에 묶어 음악 박자에 따라 향발을 치며 춤춘다.



■ 무고(舞鼓)

—이하는 『진작의궤』부편에 춤의 내용과 순서가 없이 제목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진작의궤』전편의 내용을 참고하였음—

한(漢)나라 때 비무(鞞舞)가 있었는데, '비(鞞)'는 작은 북이다. 대개 북의 박자를 사용하여 춤추는 것이다. 고려조(高麗朝) 때 시중(侍中) 이혼(李混)이 바닷가에서 떠내려오는 뗏목을 주워 무고(舞鼓)를 만들었고, 인하여 당시에 사용하는 향악기(鄕樂器)가 되었다. 무동 4인이 각각 북채를 들고 음악의 박자에 맞추어 북을 치면서 춤춘다.



■ 고구려(高句麗)

『도서집성(圖書集成)』에, "번호(蕃胡)의 네 번째 곡이다. 수 양제(隋煬帝)가 요동(遼東)을 정벌할 때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였다. 무동 6인이 세 대(隊)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고 춤춘다.

金花折風帽	금화로 장식한 절풍모 쓰고
白馬少遲回	백마 타고 매우 더디게 돌아오네
翩翩舞廣袖	펼럭펼럭 넓은 소매로 춤을 추면
似鳥海東來	흡사 해동에서 새가 날아오는 듯



■ 아박(牙拍)

박(拍)은 여섯 개의 판(板)을 사용한다. 이것을 두드리며 춤추는 박자로 삼는다. 송나라 때의 악무(樂舞)에 '아박(牙拍)'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우리 조정에서는 향악 정재(鄕樂正才)에 사용하였다. 열 두 달의 가사를 아뢰는데, 매월마다 가사가 변하고 춤추며 진퇴한다. 두 무동(舞童)이 각기 아박을 들고 박 소리에 따라 아박을 두드리며 춤춘다.



■ 포구락(抛毬樂)

송(宋)나라 때 여자의 대무(隊舞)에 포구락대(抛毬樂隊)가 있었다. 고려조는 단오절(端午節)에 포구락을 하였는데, 여기(女妓)가 전(殿) 앞에서 노랫말을 불렀다. 우리 조정의 연례(宴禮)에도 또한 이것을 모방하여 사용하였다. 주칠목(朱漆木)을 사용하여 구문(毬門)을 만들고, 용봉(龍鳳)을 그리고 무늬있는 비단으로 장식하며, 문 위에 구멍 하나를 내어 풍류안(風流眼)이라고 하는데, 채구(綵毬)를 우러러 던진다. 무동 10인이 5대(隊)로 나뉘어 전대 2인이 각각 수구를 들고 춤추다가 우러러 던지고, 중대와 후대는 전대를 따라 춤추며 물러났다가 차례차례 나아가 춤춘다. ('진작의궤' 부편에 추가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 이번에는 무동 6인이 세 대(隊)로 나뉘어, 전대(前隊) 2인이 각각 수구(綵毬)를 들고 춤추다 우러러 던진다. 중대(中隊)와 후대(後隊)는 전대를 따라 춤추면서 물러났다가 차례차례 나아가 춤춘다.



궁중정재 재현안무 박은영

중요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이수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사)궁중무용 춘앵전 보존회 이사장



궁중정재 재현안무 인남순

한국전통문화연구원 원장
중요무형문화재 제 39호 처용무 전수조교

찬 품

■ 연경당진작(演慶堂進爵)

대전·중궁전이 진어하시는 찬안

각색 떡, 조악·중병 및 단자·양색산삼, 수면, 약과, 다식과, 각색 다식, 양색 강정, 삼색 매화 연사과, 각색 엿, 용안·여지, 조란·율란·강란, 배·살구, 대추·밤, 송백자, 각색 정과 및 삼색 녹두가루 떡, 수정과, 잡탕, 갈색 절육, 편육, 양색 지나, 전복·저태 볶음, 각색 화양적, 꿀, 겨자, 초장, 상화

대전·궁전이 진어하시는 소반과

각색 떡, 수면, 다식과·만두과, 삼색 다식, 삼색 매화강정, 조란·율란·강란, 배·밤·살구, 각색 정과 및 양색 녹두가루 떡, 수정과, 잡탕, 각색 절육, 편육, 해삼전 및 양색 지나, 전복 볶음 및 각색 화양적, 꿀, 겨자, 초장, 상화

대전·중궁전에게 올리는 별미

양숙편육

대전·중궁전에게 올리는 탕

금중탕

세자궁에게 올리는 찬안

각색 떡, 수면, 약과·다식과, 삼색 다식 및 조란·율란·강란, 양색 매화강정, 배·밤·살구, 각색 정과 및 양색 녹두가루 떡, 수정과, 잡탕, 각색 절육, 편육, 소밥통전·해삼전, 전복 볶음 및 각색 화양적, 꿀, 겨자, 초장, 상화

세자궁에게 올리는 탕

금중탕



궁중음식 고증 한복려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 기능보유자
궁중음식연구원 원장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상임이사
한국관광공사 명예홍보대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 전공 이학박사



무동복식

■ 관모(冠帽)

신분이나 의례에 따라 격식을 갖추기 위하여 머리에 쓰는 물건.

笠 簔 花 金



금화첨립

髻 雲 高



고운계

帽 光 硃



아광모

■ 포(泡)

바지 · 저고리 위에 입는 겹옷. 색상에 따라 녹라포 · 벽라포 · 홍라포 등이 있음.

袍 羅 紅



홍라포

■ 중단(中單) 및 겹옷

예복의 속에 입는 홑옷. 연경당 공연 때는 바탕에 검은 색으로 깃 · 도련 · 소매 끝에 선을 두른 백질남선중단의 와 겹에 입는 회색패자 · 석준화전복 · 남철릭 등을 입음. 단의.



백질흑선중단의

子 褂 玄 灰



회색패자

裏 貼 藍



남철릭

服 戰 花 竹 石 綠 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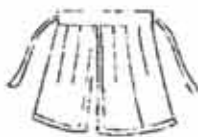
석준화전복



■ 상(裳)

조선시대 때 왕 이하 문무관리들이 예복에 착용했던 치마 형태의 옷. 연경당 공연 때는 남질혹선상과 홍질님선상, 백질혹선상을 주로 입음.

紅裳藍袴



紅裳藍袴
紅裳藍袴
紅裳藍袴

남질혹선상

■ 띠

신분과 계급에 따라 모양이나 색깔을 달리하여 허리에 두르던 띠.

銀束帶



은속대

■ 신발

잔화와 같이 목이 긴 '화(靴)'와 짧은 신을 가리키는 '이(屐)'를 주로 신음.

烏鼻屐



오비혜(오혜와 유시)

烏靴



흑화(오화)

烏靴
烏靴
烏靴

공중의상 고종 그레타 리(이용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한성대학교 겸임교수
2006 MBC 창사 45주년 특별기획드라마 "주몽" 제작지원



악기

■ 현금(玄琴)

거문고, 명주실을 안죽과 껍에 얹어 술대로 연주하는 현악기



■ 가야금(伽倻琴)

12줄의 명주실을 안죽 위에 얹어 연주하는 현악기



■ 아쟁(牙箏)

활대로 줄을 마찰시켜 소리를 내는 현악기



■ 해금(奚琴)

두 줄 사이에 활대를 끼워 연주하는 악기



■ 대금(大金)

대나무에 구멍을 뚫고 가로로 잡고 부는 관악기



■ 피리

대나무 관대에 서(리드)를 꽂아 세로로 만든 관악기



■ 방향(方響)

16매의 직사각형 철판으로 된 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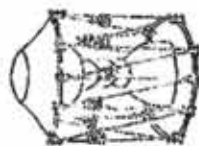
■ 교방고(敎坊鼓)

양면에 가죽을 댄 북통을 틀에 매달아 놓고 연주하는 타악기



■ 장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단 반주용 타악기



■ 갈고

양쪽 마구리를 말가죽으로 맨 장구와 비슷한 타악기



■ 박

궁중음악과 무용의 시작 및 끝을 알리는데 사용된 여섯 쪽의 나무판으로 된 타악기



■ 휘

음악을 연주할 때 지휘봉처럼 쓰는 기(旗)



■ 회죽

춤을 출 때 무용수의 등퇴장을 인도하는데 쓰는 의물



음악감독 김해숙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원장
한국산조학회 회장, 한국국악학회 이사, 영산예술단 이사





출연자 소개

■ 악사

음악감독 : 김해숙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집박-신현식 (프로젝트 시나위 대표)
 장고-윤형욱 (국립국악원 정악단)
 좌고-이광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재학)
 피리-김철, 이종무 (국립국악원 정악단)
 대금-윤석만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수료)
 해금-한갑수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 정재 연출

박은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김효진, 박은영, 백설, 위송이, 이해선 ((사)궁중무용춘앵전보존회)

인남순 (한국전통문화연구원 원장)
 고우리, 권미선, 김꽃지, 김빛나래, 신유진, 최윤정 / 봉화봉필 - 강수진, 이지혜
 (한국전통문화연구원 정재연구원)

■ 창사

김선경, 지민아 (한양대 국악과 정가전공)

■ 의례출연진

곽유하, 김보경, 김상엽, 김예슬, 김정현, 류기산, 변요한, 송상은, 양준석, 이경미, 이형구, 임지연,
 조동현, 조지승, 최영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
 강재승, 김지희, 석영진, 안도영, 유예원, 윤원진, 이정화, 이현아, 이현희, 정윤경, 지난영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이론과)
 왕 : 양성우 왕비 : 신영애

서울국제문화교류회 소개

■ 설립취지 및 목적

서울국제문화교류회는 문화예술의 국제적인 교류를 통하여 한국문화 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예술가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함과 동시에 지구촌 젊은 예술가들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뜻을 모아 2002년 11월에 창립되었습니다.

한국문화의 다양성과 강점을 소개하고 국제적 문화교류와 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키며,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육적 경험의 제공 및 젊은 예술가들에게 꿈과 비전 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문화의 세기를 맞아 국가 간의 문화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 2002년 서울국제문화교류회 창립
- 2004년 제1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 2005년 제2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 2006년 제3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 2006년 6월 순조 무자년(1928) 진작의궤에 따른 연경당 진작례의 연행복원
- 2007년 제4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 2007년 6월 순조 무자년(1828) 진작의궤에 따른 연경당 진작례의 연행복원
- 2008년 제5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 2008년 3월 시간으로의 여행 - 김천홍선생님 100년을 회고하며 후원
- 2008년 10월 순조 무자년(1828) 진작의궤에 따른 연경당 진작례의 연행복원
- 2009년 제6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소개

본 연구소는 국가 문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는 연구 기관으로, 세계 각국의 전통 문화와 민족무용 연구 및 교류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발전시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학술적 체계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아시아 전역의 전통 예술 및 민족무용 분야의 연구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세계민족예술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본 연구소의 설립 취지에 맞게 다음과 같은 목적을 향해 정진할 것입니다.

-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전통 무용 및 그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현상 등을 연구
- 전통 무용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
- 일반 및 재현 공연, 학술교류

아울러 본 연구소에서는 동아시아 및 세계 각국의 무형 문화유산을 계속적으로 무대에 올리는 작업과 우리의 뛰어난 전통 예술을 세계무대에 알리는 작업을 통해 우리 춤과 다른 민족 무용의 비교 연구 등 학문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 수고하신 분들

총감독: 허영일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소장)
 총연출: 허동성 (연출가, 연극학박사, Asian Scholarship Foundation Fellow)
 고증자료연구지원: 김은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의상: 이용주 (그레타리 대표)
 궁중음식: 한복려 (궁중음식연구원 원장)
 화장: 김은수 (만발화 대표)
 의물·의상지원: 한효림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연구원)
 의상, 소품 지원: 최규만 (국립국악원 무대과장)

공연지원: 김옥순, 김혜진, 박성희, 정지영, 최가원 (서울국제문화교류회)
 이지현 (세계민족무용연구소)
 공연진행: 김지연, 이은누리, 최서영, 최재원, 최지나
 진행보조: 김남희, 임준희, 정지현, 조영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이론과)
 분장: 소인경
 사진: 석인철, 최영모
 촬영: 지화충

서울국제문화교류회
Seoul International Cultural Foundation



세계민족무용연구소
The World Ethnic Dance Institute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1007-2 201호
Tel. 02-746-9347 Fax. 02-746-9348

